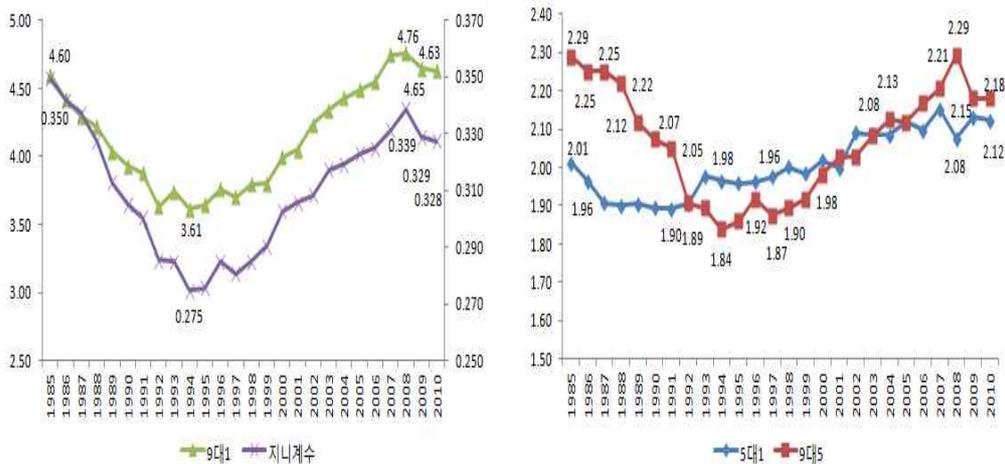


## 임금분배의 최근 추이

- 우리나라 임금분배 지표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이래 임금분배가 개선되어 1994년에 가장 좋은 상태를 보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오름차순으로 세운 후 10등분 했을 때 가장 낮은 첫 번째 등분의 가장 높은 임금을 1분위 임금이라고 하며, 가운데가 5분위 임금, 가장 높은 10번째 등분의 가장 낮은 임금을 9분위 임금이라고 함.
  - 9분위 임금을 1분위 임금으로 나눈 값이 9대1 분위배율임. 2008년 값은 4.76인데, 이는 1분위 임금에 비해 9분위 임금이 4.76배 크다는 뜻이 됨.
  - 과거 시계열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용직, 비농림어업, 상용직 10인 이상 고용 규모로 표본을 제한하였음.
- 이와 같은 분배율 추이는 주로 상위임금 계층에서의 변화가 만들어냈음. 1994년 1.84로 가장 낮았으며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함.
  - [그림 1] 우측의 9대5 분위배율을 보면, 이는 중위임금 대비 상위 9분위 임금 차이를 보여줌.

[그림 1] 우리나라의 임금분배 추이(1985~2010)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원자료.

- 하위임금 계층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5대1 분위배율에서는 1994년까지 극적인 임금 분배율 개선과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99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임금분배 악화 시점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도 1994년 0.275로 가장 낮았고, 2008년 0.339로 가장 높았음.
-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임금분배 악화 추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와 같은 임금분배 개선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표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임금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추세는 아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5인 이상 상용직에 한정되는 조사이므로 모든 임금근로자의 임금분배를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같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자료를 이용해 임금분배 추이를 보면, 분배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고용관련 지표 생산을 목적으로 조사되므로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표하며, 8월 부가조사에서 지난 3개월 평균임금을 조사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함.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이 조사의 하위표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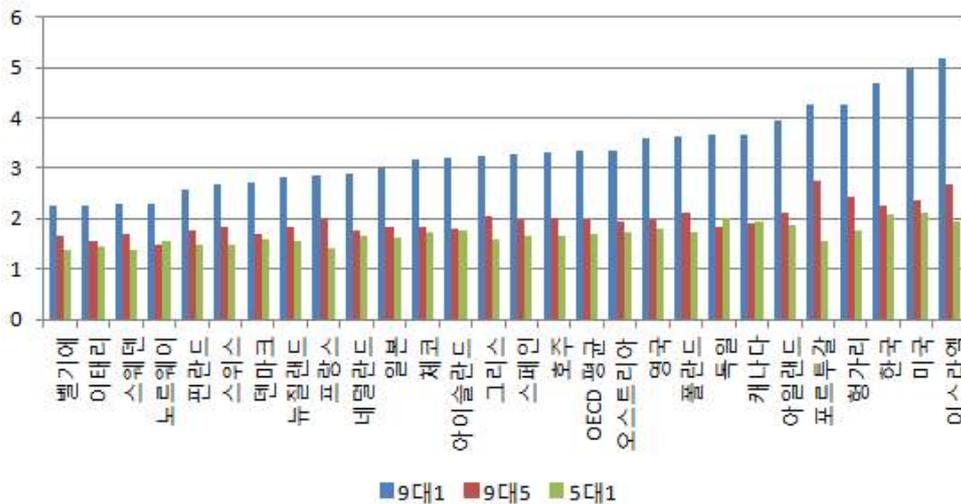
〈표 1〉 임금분배 최근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대1	9대5	9대1	지니계수	5대1	9대5	9대1	지니계수
2002	2.2	2.3	5.0	0.325	-	-	-	-
2003	2.2	2.3	5.1	0.335	-	-	-	-
2004	2.2	2.3	5.0	0.335	-	-	-	-
2005	2.2	2.3	5.0	0.339	-	-	-	-
2006	2.4	2.1	5.0	0.339	-	-	-	-
2007	2.4	2.1	5.2	0.346	-	-	-	-
2008	2.1	2.3	5.0	0.339	2.2	2.5	5.6	0.375
2009	2.3	2.3	5.4	0.349	2.2	2.5	5.6	0.373
2010	2.3	2.3	5.1	0.352	2.3	2.5	5.8	0.374
2011	2.4	2.2	5.4	0.350	-	-	-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8월 자료를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9대1 분위배율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래 2009년에 가장 좋지 않았고, 2010년에 소폭 개선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는 2010년이 가장 좋지 않았고, 2011년은 약간 개선되었지만 이 역시 매우 높은 수치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2008-2010년 3개년 수치만 확인할 수 있는데, 9대1 분위배율은 2010년이 가장 악화된 상태로 나타나며, 지니계수는 2008년 0.375, 2009년 0.373, 2010년 0.374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2008년 이래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임금분배 상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불평등한 것임.
  -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인 2009년 기준 임금분배율을 보면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9대1 분위배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KLI**

[그림 2] OECD 국가들의 임금분배(2009년)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